



충성대신분



▲ 공수훈련 중인 사관생도들이 헬기에서 강하를 실시하고 있다.

장마와 무더위를 뜨거운 열정으로 극복하고 정예장교의 꿈을 키우다!

본교 56기·57기 사관생도, 8주간의 하계군사훈련 대장정의 막을 내리다



한여름의 피약별이 내리쬐던 지난 6월 말, 사관생도들은 일반학 수업을 뒤로하고 8주간의 하계군사훈련에 전격 돌입하였다. 6월 22일 57기 사관생도들의 공수훈련으로 시작된 하계군사훈련은 56기 사관생도들이 6월 29일부터 유격훈련에 입소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하계군사훈련은 사관생도들이 군인이라면 누구나 공통으로 익히고 숙달해야 하는 기본전투기술을 배우고, 동시에 장교이자 소부대 지휘자로서 지녀야 할 리더십과 정신전력, 소부대 전투지휘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다.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과 장마철의 습한 기후, 폭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장차 아전에 부임해서도 전천후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소대장

을 길러내고, 극한 상황 속에서도 올바르게 적시적인 판단과 전투지휘를 통해 부하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부여된 전투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57기 3학년 생도들은 '기본 전투기술 숙달'을 목표로 독도법 교육과 통신장비 조작 및 숙달, 구급법, 화생방, 경계 등 장병기본훈련 과목을 숙달했으며, 리더십과 정신전력 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과 신념을 구비하였다. 특히, 특수전학교에서 3주간에 걸쳐 수탁교육으로 진행된 공수기본과정 이수를 통해 모든 생도가 공수 휘장을 가슴에 달게 되었으며, 유사시 적지중심지역에 공수낙하를 통해 특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역량을 배양하게 되었다.

56기 4학년 생도들은 '소대 전투기술 및 전투지휘능력 배양'을 목표로 소대공격 및 방어훈련을 통해 소부대전투기술을 숙달하였으며, 독도법, 화생방 등을 통해 소대장으로서 전투지휘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폭염에도 불구하고 화산 유격장에서 극한의 상황을 이겨내 가며 성공적으로 유격훈련을 마침으로써, 전천후 전투역량을 구비케 되었다. 특히,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라는 요구에 부합하는 정예장교가 되기 위해 합동

교육을 통해 연합 및 합동작전을 학습하였고, 기간 중 해·공군 사관학교를 방문 및 교류의 시간도 가지며, 타군을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한편, 올해도 하계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추진한 군사훈련처는 이번 훈련기간 동안 사관생도들의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 및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관생도 주도의 문제해결형 교육방법을 적용하였다. 즉, 생도 스스로 'Know How, Know Where'를 찾도록 생도 주도 학습방법을 적용하여 사관생도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상황에서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고, 새로운 방안 및 대책을 강구하는 문제해결형 사고방식을 체득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번 훈련 간에는 안전이 확보되어야 민이 교육성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학교본부 차원의 안전본부와 더불어 모든 교관 및 훈육관, 교수부와 행정부 간부들이 안전요원이 되어, 매 훈련시 마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훈련 중에도 끊임없이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단 한 건의 안전 및 인명사고 없이 훈련을 마칠 수 있었다.

이번 훈련을 계획하고 시행한 군사훈련처장 권금락 대령은 "무더위와 장마,

35도를 넘나드는 찜통더위 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모든 교관과 조교, 훈육 요원, 학교 간부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서인지 사관생도들도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교관과 생도들 간에 끊임없는 교류와 학습을 통해 교학상장(敎學相長)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이번 훈련에 참가한 4학년 정아란 생도(56기)는 "이번 하계군사훈련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날도 많았지만, 여러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번 훈련에서 배우고 익힌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강하고 스마트한 정예장교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편집인 고성진

02	특집	하계군사훈련 포토스케치
04	학교소식	사관생도 전적지탐방
05	기획취재	권병현 본부장
06	생도광장	추천명화·생도 양케이트
07	오피니언	사설·충성대 칼럼
10	교양	건강상식·명문가를 찾아서
11	동문소식	故 백선엽장군 조문
12	발전기금	발전재단 소식



56기 기자생도 정이란
57기 기자생도 이용탁
박군호
황선관
이형민

“ 본교 3·4학년 생도들은
하계군사훈련을 통해 강인한 체력과
필승의 정신무장을 연마했다 ”



정예장교가 되기 위한 무더위속 담금질 '하계군사훈련'

본교는 56기·57기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2일부터 시작한 하계군사훈련을 8월 7일부로 마쳤다. 유격훈련(4학년, 56기)과 공수훈련(3학년, 57기)은 물론 개인화기, 각개전투, 구급법, 소대공격 및 방어 등 군인에게 꼭 필요한 전기전술과목들을 연마하였다.



▲ 유격 체조를 실시하고 있는 사관생도들



▲ 사관생도들이 유격 훈련 중 장애물을 넘고 있다.



▲ 참호격투를 하고 있는 사관생도들



▲ 유격 훈련 간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관생도들



▲ 공수 훈련을 위해 헬기에 탑승하고 있는 사관생도들



▲ 사관생도들이 헬기에서 강하를 실시하고 있다.





▲ 국내 전적지 탐방(칠곡 호국평화기념관)

“사관생도들은 하계군사훈련 중 무더위 속에서도 전적지 탐방을 통해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시간도 가졌다”



▲ 국내 전적지 탐방(칠곡 호국평화기념관)



▲ 국내 전적지 탐방(영덕 장사상륙작전기념관)



▲ 국내 전적지 탐방(한화디펜스)



▲ 생도들이 정신전력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구급법 교육 중 심폐소생술 실습을 하고 있다.



▲ 각개전투 훈련 중 목표를 향해 돌격하고 있는 사관생도들



▲ 막타워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사관생도



▲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사관생도

사관생도 전적지 탐방, '조국수호' 의지 다져

57기 사관생도 500여 명, 2박 3일 간 국내 전적지 탐방 실시

본교 57기(501명, 女53명) 사관생도들은 지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국가관과 안보관을 합방하기 위한 '국내 전적지 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전적지 탐방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낙동강 지구 전적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발로 밟으면서 조국수호를 위해 피흘려 싸우셨던 선배 전우와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몸소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생도들은 2박 3일간에 걸쳐 칠곡의 다부동과 호국평화기념관 등 영남권에 위치한 낙동강지구 전적지를 탐방하였다.

첫째 날은 답사 관련 전사 연구 및 토의·발표를 진행하고 장사상륙작전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장사리의 잊혀진 영웅들' 영화를 시청하며 학도병들의 희생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사관생도들이 도보로 작오산 등 칠곡 다부동 전적지 일대를 답사하고 호국평화기념관, 영덕 장사상륙작전기념관 등을 견학하였다. 아울러 현장에서 전사 토의도 병행하며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몸소 느끼는 물론, 소부대 지휘자 및 리더에게 필요한 전술적 식견과 현장 지휘 감각도 익힐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전적지 탐방에 앞서 사관생도들은 방문 장소에 대해 미리 조사하고 동료들 앞에서 발표와 토의를 진행하는 등 선행학습을 통해 전사에 대한 이해를 높인 가운데 진행함으로써, 교육적 성과를 극대화하였다.

한편, 이번 전적지 답사에 참가한 이상현 생도(57기)는 "조국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배 전우들의 고귀한 희생과 호국정신을 가슴에 새기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생도 생활에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여 강하고 스마트한 정예장교가 되겠다."고 말했다. **대위 이지수**



▲ 2020년 국내 전적지 탐방간 칠곡 호국평화기념관 일대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육군3사관학교 - 안동의료원 MOU 체결

군장병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 학교장(소장 장달수)과 안동의료원 이윤식 원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지난 7월 15일 본교와 경북 안동의료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6년 군 장병 금연캠프로 시작한 금연서비스의 지원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하고 확

대된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보건의료 발전과 군 장병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협약에서 본교와 안동의료원은 군 장병과 사관생도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병원 진료와 건강검진, 금연 연수 프로그램 운영, 여군 및 여생도에 대한 산부인과 진료 지원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안동의료원 이윤식 원장은 "국가방위에 앞장서서 소명을 다하는 군 장병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강하고 건강한 병영 육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장(소장 장달수)은 "의료원에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학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장병과 사관생도들의 건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무관 길진규**

육군사관학교와 우의 증진과 교류 활성화



▲ 육사교장 정진경 중장이 학교를 방문해 학교장(소장 장달수)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31일 육군사관학교장(중장 정진경)과 교수부장, 주임원사 등 주요직위자 8명이 본교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본교와 육군사관학교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 및 시설 발전계획과 사업추진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는 학교장(소장 장달수)과의 환담 후 학교 홍보영상 시청과 더불어 소통 간담회 오찬, 학교 투어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향후 교류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협의하는 등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는 후문이다. **주무관 이경희**

강하고 스마트한 정예장교로 성장할 우수인재 선발



▲ 지원자들이 예비생도 3차 선발시험 중 면접을 보고 있다.

58기 정식·59기 예비생도 선발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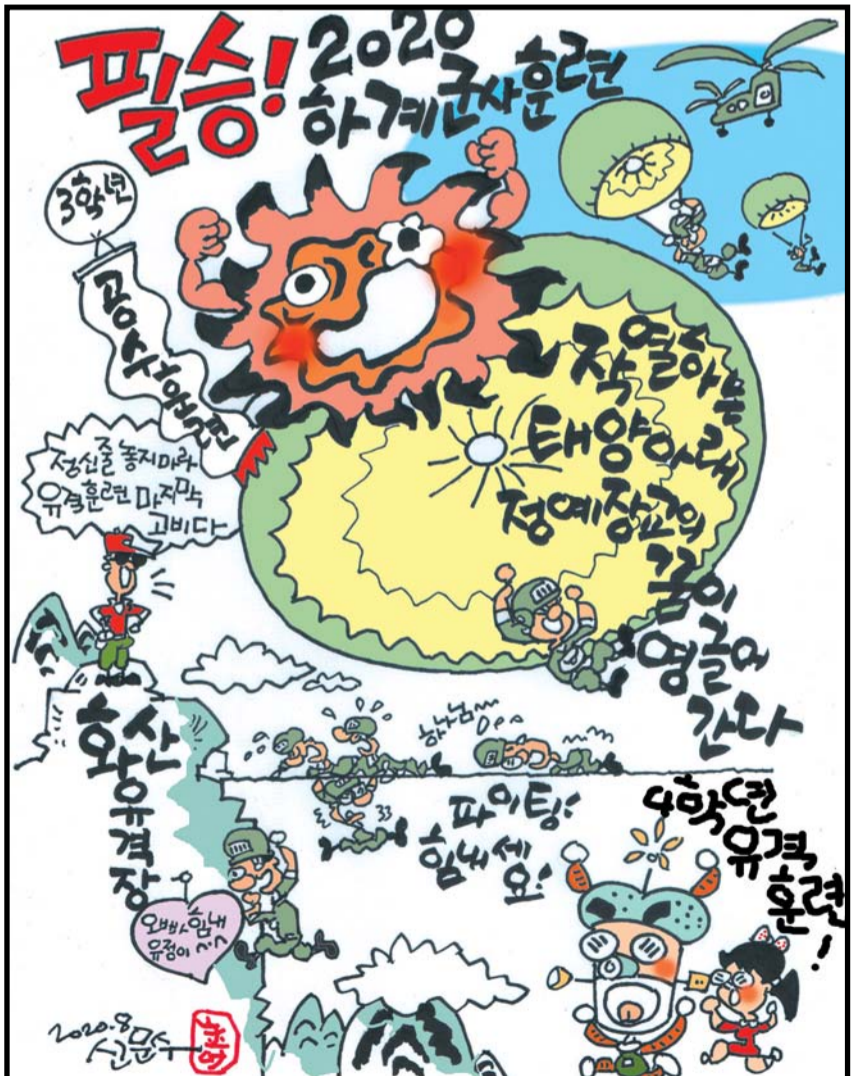
본교는 지난 6월 12일 1차 서류전형에 이어 6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8주간에 걸쳐 2021년에 입교할 58기 정식생도와 2022년에 입교할 59기 예비생도를 선발하는 2·3차 생도선발시험을 진행하였다.

총 3차로 구성된 선발 과정은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고사, 3차 신체(체력)검사 및 면접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1차 선발은 대학성적 또는 고교내신과 수능성적(공인영어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2차 선발은 영어(모의 토익) 평가와 간부선발도구를 활용한 지적능력 평가로 진행한다. 3차 선발은 신체검사, 면접, 체력검정 등으로 평가를 실시하는데, 최종 선발은 3차 결과뿐만 아니라 1·2·3차 성적을 일정 비율로 합산하여 우수자 순으로 선발한다. 이러한 선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총 550

명이며, 이 중 여생도는 55명이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58기 정식생도가 10월 30일, 59기 예비생도는 10월 16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모집선발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평가실장 천윤환 대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이끌어갈 정예장교를 선발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와 공정성을 토대로 선발을 진행하였다"라고 하면서 "학위교육과정 등을 이수할 수 있는 지적능력과 더불어 장교다운 올바른 인성과 품행을 지니고 있으며, 건전한 가치관과 강한 체력을 갖추고 있는 인재를 선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라고 선발 과정의 소감을 피력하였다.

한편, 올해 입시경쟁률은 예년과 비슷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개성을 지닌 가운데 지·덕·체를 겸비한 수준 높은 지원자들이 많아, 학교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무관 김민수**



지난 5년 간 총성대와 인연을 맺으며 총성대 민평을 진행해 오신 신문수 회백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민평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민평으로 총성대신문을 빛내주심에 감사드리며 회백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첨단무기 개발의 산실 LIG넥스원, 구미 생산본부를 이끌고 있는 권병현 본부장



LIG넥스원 생산본부(구미시 소재)를 이끌고 있는 권병현 생산본부장(59)은 경기고등학교, 울산대학교(학사), 연세대학교(석사)를 졸업하고 LIG넥스원의 전신인 금성정밀에 연구원으로 입사한 뒤 생산기획팀장, 전략기획팀장, 해외구매팀장, 미국사무소장 등의 직책을 수행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2018년부터 LIG넥스원 생산본부장이자 총책임자로서 방산업계의 미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딱딱하고 틀에 박힌 조직이 아닌 전 직원과 함께 자유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어나갈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로 함께 어울리며,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 나가는 권병현 생산본부장과의 유쾌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 ★ LIG넥스원은 전국 3개 소의 국립묘지와 업무협약을 맺은 유일한 방산업체이다.
 - 국립서울현충원(판교하우스, 2010. 1), 국립대전현충원(대전하우스, 2012. 6), 국립영천호국원(구미하우스, 2018. 7)
- ★ 2020년 7월 LIG넥스원 생산본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증진과 더불어 보훈문화확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Q 기획취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부장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저는 31년 전 LIG넥스원의 전신인 금성정밀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15년 동안 포병자동화시스템, 합정용 전자전 장비 등을 개발하였고 생산본부의 유도수중무기 생산책임자를 맡았습니다. 이후 해외구매팀, 미국사무소를 거쳐 신사업담당으로 로봇, 연료전자 등 신기술 사업부서에 근무한 후 5년간 구매실장을 수행하였고, 2018년부터 생산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Q 사관생도들을 위해 LIG넥스원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1976년 설립된 LIG넥스원은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DTaq)과 함께 정밀유도무기,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등 육·해·공 전 분야에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각광 받는 첨단무기체계를 개발·양산해온 대한민국 자주국방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특히 LIG넥스원은 전체 임직원 3,200여 명의 절반 이상이 연구원이며 석·박사 비중이 60%로 단일 방산업체로는 최대·최고 수준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R&D 중심 기업'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중·저고도로 침투해오는 다양한 적 공중위협 및 탄도탄에 대응하는 '천궁 II' 항공기, 유도탄 등의 탐지가 가능한 '국지방공레이더', 대화력전 핵심 전력인 '대포병 탐지레이더-II',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인 '현궁', 소형 고속함정의 위협에 대응하는 해안방어용 유도무기체계인 2.75인치 유도 로켓 '비공' 등 다수 무기체계의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을 준비·진행 중입니다.

Q LIG넥스원에 입사하게 된 계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A 저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였고 전자정비병으로 강원도 고성에서 군 생활을 하였습니다.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후에 무기개발에 대한 호기심으로 방산업체인 금성정밀을 선택하여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하고 난 뒤, 가장 먼저 겪은 시련은 부족한 지식이었습니다. 첫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환경 시험하는 단계에서 진동과 충격시험을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진동제어로 유명한 박영필 교수님을 찾아뵙고 많은 가르침을 받아 연구소에서 개발하는 모든 장비의 진동과 충격분제를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시련은 해외구매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수출허가와 해외 협력 등의 목적으로 미국사무소를 설립하는 임무였습니다. 부족한 영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 4개월 동안 주말마다 원어민과 2시간씩 공부하여 자격을 얻었고, 미국에 가서 사무소를 설립하고 Role & Responsibilities를 정립했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들과 많은 교류를 갖고 성과를 얻어내야 하는 과정 중에 협상력을 키울 수 있었고 인내를 배웠습니다. 이때 배운 교훈으로 지금도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예측과 준비를 해야 하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업무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31년 이상 회사 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시련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선·후배 및 동료들의 신뢰와 배려, 가족들의 무한한 사랑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Q LIG넥스원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 가장 자랑할만한 제품 한 가지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A 2017년 개발이 완료된 '대포병탐지레이더-II'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적인 국산 무기 개발 사례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적 화력도발 시 날아오는 포탄을 탐지, 역추적하여 적 화포의 위치를 아군 포병부대에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대포병탐지레이더-II'는 대화력전 수행체계의 핵심장비입니다. 기존 '아서-K'에 비해 탐지범위 및 작전지속능력이 30~40% 늘어난 것은 물론 국산 화율이 95%에 달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군수지원이 가능함으로써 유지보수 비용도 절감하고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됩니다.

Q LIG넥스원이 군 무기체계 발전에 기여한 많은 것 중 가장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 제품은?

A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LIG넥스원이 참여해 개발된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현궁'을 손꼽아보고 싶습니다. 현재 전력화가 진행 중인 현궁은 기존의 대전차 유도무기에 비해 주·야간 사격이 용이하고, 유효사거리, 관통력 등 성능이 우수한 것은 물론, 개인 휴대 또는 소형 전술 차량에 탑재하여 적 전차의 취약한 상부나 정면 공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발사 후 망각형(Fire&Forget) 방식의 최신 대전차 유도무기로 사수의 생존성과 명중률이 향상되었으며, 반응장갑을 파괴하고 주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이중성형자야탄두를 적용하였습니다. 현궁은 해외의 유사무기체계와 비교할 때도 소형·경량화 등 운용성은 물론, 유효사거리, 관통력, 광학성능, 탐지·추적성능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Q 코로나로 인하여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LIG넥스원은 현재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요?

A LIG넥스원은 사업장 출입, 근무, 회의, 식사, 대내외 행사, 국내의 출장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한편, 철저한 방역 활동을 통해 코로나 예방을 위한 선제적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사적 노력에 힘입어 다행히 확진 환자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LIG넥스원은 코로나 종식까지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선제적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미래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안보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LIG넥스원은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A LIG넥스원은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국방 및 민간기술 상호교류를 통한 스피온·오프(Spin-On·Off)의 동시실현을 추진하는 한편, 무인화·드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LIG넥스원은 그간의 연구개발 경험과 핵심기술 간 융합을 통해 무인수상정(해검)을 비롯해 소형 정찰 드론, 다목적 무인 헬기 등 미래전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첨단기술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첨단 탐지장비를 장착하고 연안정보회득과 항만 감시정찰, 해상제해 초동 대응, 불법조업 선박 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수상정(해검-1호)은 개발성공을 인정받아 '18년 '올해의 10대 기계기술'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감시정찰 능력 등이 강화된 무인수상정(해검-2호)을 민간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 중입니다.

Q 사관생도 중에서 장래에 방위산업 분야로 진출을 희망하는 인원들도 있을 것인데,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우리가 개발하고 생산한 무기체계가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일할 수 있는 방위산업 관련 분야는 생도 여러분들에게도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각광받는 우수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만큼 그 비전도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군의 요구를 충족하는 우수한 무기체계를 만들어내야 하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개방적인 사고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가 중시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방위산업에 관심이 있는 생도들은 여러분이 다루게 될 무기체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언제나 개방과 긍정의 마인드를 키워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짊어지게 될 청년 사관생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은?

A '미래 육군을 이끌어 나갈 정예 장교'로서 국가 안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무한한 자부심과 열정으로 모든 훈련과 생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닥치더라도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며 끝까지 '도전'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시련과 성취의 순간들을 지나고 나면 어느순간 훌쩍 성장한 나를 보게 될 것이며, 스스로의 경험을 나누며 주변 사람들의 성장에 기여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LIG넥스원은 여러분이 군에서 복무하는 동안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는 신기술의 우수한 무기체계를 계속 개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56기 기자생도 정아란

추천영화

승리호



많은 사람이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영화를 좋아한다. 특히,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명작도 많다.

다양한 시각적 효과와 스토리로 우리를 매료시켰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 화성에서 주인공의 생존기를 그린 리들리 스콧 감독의 '마션', 사상 최고의 우주 영화라는 평가를 받는 '그래비티' 등 많은 영화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처럼 우주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영화들이 있지만, 한국에서 만든 우주 배경의 영화는 마땅히 떠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SF영화의 불모지라 불리는 한국 영화계에서 최초로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블록버스터 영화가 곧 등장한다. 바로 2020년 9월 23일 개봉을 앞둔 조성희 감독의 신작 영화 '승리호'다.

'승리호'는 2092년 먼 미래 폐기된 인공위성과 표류하는 우주선 등 위험한 쓰레기로 가득 찬 우주를 배경으로 하여 인류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위성

궤도에서 우주 쓰레기를 모으는 청소선 '승리호' 선원들의 모험담을 그린 영화다.

돈이 되는 쓰레기를 찾아 나선 '승리호' 캡틴 장선장(김태라)과 조종사 태호(송중기), 그리고 기관사 타이거 박(진선규)과 작살잡이 로봇 업동이(유해진)는 다른 청소선과 경쟁하며 쓰레기를 수거하던 중 대량 살상무기로 알려진 인간형 로봇 '도로시'를 발견하게 된다. 이후 위험한 거래에 휘말리게 되면서 거대한 작전에 휘말리게 되는 승리호 선원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사실 우주 SF 장르의 한국영화에서 흔치 않아 기대 반 걱정 반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인터스텔라, 마션, 그래비티 등의 영화를 보며 '우리는 언제 이러한 영화를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영화는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영화의 흥행을 떠나 제작을 시도한 사람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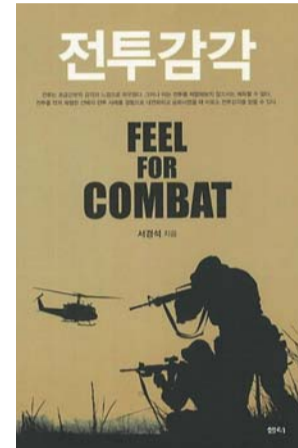
56기 기자생도 권정우

독서감상문

전투감각

서경석 지음

올해는 다른 해보다 유난히 습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하계군사훈련이었다. 훈련 중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하며 정신없이 흘러가는 소대방어훈련 중 우리조를 공격하는 대항군을 기다리면서 문득 나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과연 지금 상황이 실제라면 나는 어떤 명령을 부하들에게 하달했을까?", "내가 내린 잘못된 명령으로 소대원 전부가 전멸된다면?", "적을 마주치거나 소대원이 옆에서 총에 맞아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 때 과연 내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을까?", "다양한 환경과 지형이 존재하는 전장에서 그에 알맞은 상황을 판단할 수 있을까?"



소대 공방이 끝나는 그 날까지 이러한 질문들은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다. 훈련을 마치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교범과 기본교재를 탐독하던 중 참고도서 목록에서 '전투감각'이란 책을 만나게 되었다. 이 책은 초급간부를 위한 전투 길라잡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다. 전투는 초급간부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고 감각과 느낌으로 통달해야 한다고 한다. 이 책은 실제로 월남전에서 맹호부대 소대장과 중대장의 임무를 수행했던 저자가 본인의 전투경험과 전투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을 바탕으로 전장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월남전 이후 50년

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당시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매우 강하게 성장했다. 현재 국군은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 파병하고 최첨단 무기와 장비를 개발해 해외에 수출하는 등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싸우더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까? 현재 국군이 보유한 무기와 장비의 수량과 성능은 세계 유수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결코 뒤지지 않지만, 과연 개개의 장비들이 전투원으로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더욱이 우리 군은 월남전 이후 전투경험이 전무하며, 그 당시 경험자들은 모두 전역하고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KCTC나 워게임 등을 통해서 간접 경험에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투감각'은 그 어떤 교범에서도 배울 수 없던 값진 간접전투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제 곧 소위로 임관하는 초급간부들에게 매우 귀중한 책이라고 여겨진다. 전투란 교범과 교리에 능통한 것이 아닌, 영악한 기지와 고도의 감각으로 행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즉, 초급간부는 적과 조우했을 시 전략가가 아닌 당장 주먹부터 날리는 싸움꾼이 되어야 하며, 이때 지녀야 할 상황에 맞는 기지와 감각이 바로 '전투감각'이다. 따라서 장차 소대장이 될 우리 모두 '전투감각'을 읽고 진짜 전투감각을 키워나가자! 56기 기자생도 금성혁

생도 앙케이트

생도들의 반기 결산, 그리고 새로운 다짐



지난 6개월간 이룬 목표는? 남은 6개월간 이루고 싶은 목표는?

유독 긴 장마와 무더위로 인해 힘들고 어려웠던 하계군사훈련도 이제 끝이 났다. 한 학기가 끝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할 무렵이 되면 생도들은 습관처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문구점에서 장만한 다이어리 한 권에 다음 학기 목표나 소소한 계획을 적어두곤 한다. 하지만 결과는 매년 마찬가지다. 계획의 적

은 작심삼일(作心三日)이듯 마음이 약해지고 생각했던 것만큼 따라주질 않는다. 제대로 실천한 계획이 드물다.

9월의 출발점에 선 우리는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며 과연 우리가 세웠던 계획만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지,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계획에 소홀한 않았는지 생각하며 자신을 질책하고 꾸짖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두가 아쉬운 시간만 보낸 것은 아니다.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생도들도 분명 존재한다. 9월을 맞아, 충성대 신문사에서 평소 자신의 계획에 성실했던 일부 생도를 선정하여 지난 6개월간 이룬 목표와 남은 6개월간 이루고 싶은 목표를 조사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얻은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Tip(팁)을 공유해보고자 한다.

먼저 A생도는 임관 이후 선택의 폭이 넓히기 위해 어학 점수 향상을 목표로 잡았으며,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결

과를 상상하니 미루는 습관을 버리고 계획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책상이나 노트 앞 페이지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목표를 적어두는 것이 좋다"면서, "시각적인 반복이 이루어지면 작심삼일에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실천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은 6개월간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정신전력 수업 중 이루어진 토의발표시간에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질문을 생각해내지 못했던 자신이 답답했다"고 답하면서 자신 혹은 타인에게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고도의 질문 능력을 갖추기 위해 연관 자기개발서 1권을 꾸준히 탐독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다음으로 B생도는 올해 초 돈 모으는 습관을 기르자는 결심을 했으며, "비록 적은 돈이지만 그 소중함을 모르면 나중에 많은 돈을 벌어도 모을 수 없다"라고 계획을 세운 이유를 말했다. 또한, "누구에게나 뚜렷하게 인식될 수 있고 수치로 환산이 가능한 목표를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매월 말 조금씩 저금한 푼돈이 연말

에 큰돈이 되어 있진 않겠지만, 작은 목표를 이뤘다는 생각에 기분이 뿌듯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남은 6개월간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임관 전후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데 코로나19로 더 줄어들게 되어서 생도생활 간 모았던 목돈으로 가족과 함께 국내 여행을 가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불확실한 꿈과 비전만으로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을 온전히 만들 수 없기에 목표가 필요한 것이다. 명확한 목표를 찾고 실행하는 사람은 그 행동 기질과 눈빛부터가 다르다고 한다.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고 누구에게나 인생의 실패는 찾아오는 법이다. 하지만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후회에 그치지 않는 생도들이 되어보자. '성공하는 비결은 실패율을 두 배로 높이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남은 6개월 동안, 그리고 더 나아가 먼 미래에도 항상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나갈 수 있는 56·57기 생도들이 되길 바란다.

56기 기자생도 유동엽
57기 기자생도 신정원

사설

Manners maketh 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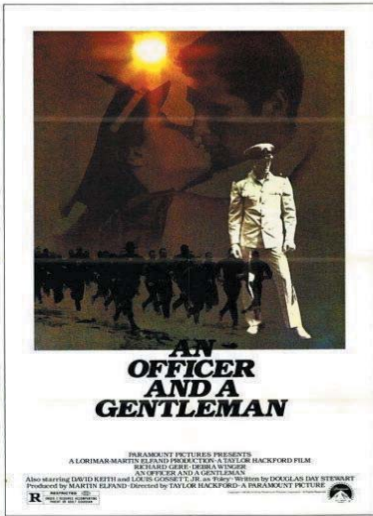
2015년 매튜 본 감독, 콜린 퍼스, 테런 에저튼 주연의 영화 '킹스맨:시크릿 에이전트'가 개봉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는 콜린 퍼스가 테런 에저튼과 술집에서 대화를 나눌 때 시비를 거는 동네 건달들과 격투를 벌이기 전 가게 문을 잠그면서 던진 "Manners maketh man"이라는 대사이다. 말 그대로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manners'는 '풍습' 또는 '예의범절'로

해석되어 '예의범절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의미가 된다.

'manners', 즉 '예의범절(禮儀凡節)'이란 '일상생활의 모든 예의와 절차'를 말한다. 그럼 예의는 무엇인가? 예의란 다른 사람과의 생활에 있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마음에 들도록 처신하는 것,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의하여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즉, 상대방에 맞추어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켜 예를 갖추는 것이 '예의'이다.

'범절'이란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언어·행동거지의 도리를 뜻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의범절'에 있어서 중심은 내가 아닌 상대방이라는 것이다. 나를 중심으로 상대방을 맞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자신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의범절'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 나온다.

성리학의 철학적 개념 중 하나인 맹자의 '사단(四端: 인간의 선한 마음을 싹틔우는 4개의 단서)'에는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이 있다. 이 중에 '사양지심'은 예지단(禮之端)으로 유학의 4가지 덕인, 의, 예, 지 중 하나인 '예(禮)'로 발전하는 인간의 착한 본성이라 한다. '사양지심'은 '겸손하여 남에게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을 말한다. 이는 자신보다는 상대방, 타인을 위하여 자신을 양보하고 타인에게 자신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manners(예의범절)'와 '사양지심'은 모두 나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있는 착한 마음이라 할 수 있다.



1982년 개봉했던 리처드 기어 주연의 영화 '사관과 신사: An Officer and a Gentleman'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주인공(리처드 기어)이 해군 조종사관 생도과정에 입학하여 자신과는 정반대로 남을 배려하는 동료(데이비드 키스)를 만나 능력을 갖춘 장교(Officer)로서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장하여 신사(Gentleman)로서의 덕목을 갖추어 간다는 이야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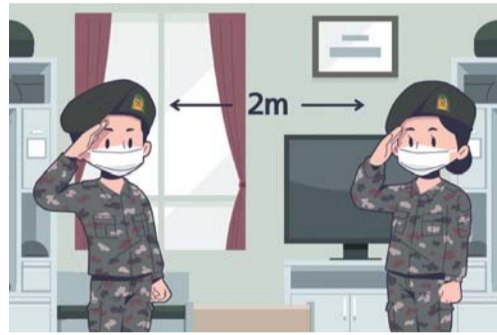
이처럼 우리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모두도 능력을 갖춘 사관(Officer)인 동시에 남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manners'와 '사양지심'을 갖춘 훌륭한 신사(Gentleman)로 성장하길 바란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에게 힘든 현실에 나보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코로나19 7개월, 군 재난대응체계를 되돌아보다

충성대 칼럼

소령 방현욱(인문사회학처 행정학교수)



2020년 1월, 2018년 메르스 사태 이후 1년 반 만에 다시 코로나19(COVID-19)라는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충격이 한국 사회를 강타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새롭게 직면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대응하였고, 지금 현재도 진행중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코로나19 사태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서 우리 군의 대응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대규모 질병과 같은 감염병 재난이 발생할 때 국방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2020년 1월 20일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 19 환자의 최초 국내 확진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위기대응 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전담조직을 설치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장이 이를 지휘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심각' 단계에 이른지 한 달여 만인 3월 3일에는 한국군의 확진자 28명, 자체예방적 격리자가 9,780명까지 늘었는데, 이는 군 1개 사단이상 규모의 병력을 사실상 마비시킨 결과였다.(경향신문, 2020. 3. 3) 하지만 한국군 규모를 60만 명으로 평가했을 때, 누적된 확진 병력은 약 0.0065%, 순수 확진자는 0.0012% 수준으로 특히 사망자수를 보면 0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서울경제, 2020. 4. 2).

이와 같이 우리 군이 탄월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이다.

국방부는 2차 긴급지휘관 회의 시 부대 장병들의 외출, 외박 등을 시행하면서 엄정한 작전 기강을 바탕으로 군 내부적으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추진하였다. 특히 민·관 분야보다 더욱 선제적으로 고강도 대책을 시행하였는데, 장병 휴가 및 외출의 통제, 간부 재택근무 지침하달, 한시적 비상근무체제 전환, 지휘관 등 필수 간부들의 영내대기 등 선제적이고도 강력한 예방적 조치를 시행하였다.

둘째, 신속한 진단능력 및 효율적 군 보건 인프라 구축이다.

우리군의 신속한 역학조사 및 코로나19 확진 검사(PCR) 지원을 통한 확진자 조기 분리, 개인 위생관리의 생활화, 진료시설 및 장비 인프라 구축 등의 선제적 조치는 코로나 19 감염차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군 내부적으로는 2020년 1월부터 선제적으로 치료능력, 진단검사, 역학조사, 격리시설 등 충분한 인프라를 구

축하였고, 진단검사 역량은 최대 일일 1,000명으로 3개 기관에서 PCR 검사를 최대 일일 280명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보건용 마스크 공적 물량을 확보하여 전장병들에게 보급하였고, 월별 개인 최소 필수요인 개인당 8매를 충족하고 위험도를 고려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셋째 MOOTW(전쟁이외 군사작전) 차원에서의 대응체계 적용이다.

우리군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의 기본개념을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전쟁 이외의 군사적 작전(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MOOTW)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이 개념은 최초 미군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군대가 전쟁 이외의 상황에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로 재해재난, 구조지원, 평화유지, 대테러 작전 등이 포함된다.

우리군은 감염병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부터 준 전시상황이라는 초유의 상황인식 하에 군 내부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지침을 하달하였고, 대규모 및 연합훈련 중단을 포함한 야외훈련을 모두 중단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군은 선박과 선박, 선박과 항공간 공간을 분리하면서, 정박 함정의 타 지역 이동을 제한하였다. 공군 또한 비행기지 내 제대별 작전병력의 동선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비행기의 타기지 이동을 통제했다.

넷째 적극적인 군 지원병력 투입이다.

우리군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적용하여, 군내 유입 차단 수준을 벗어나 민간병원 진료 공백 최소화와 함께 대민지원, 의무인력 지원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결국 이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방역 및 치료지원 현장에 적극적으로 투입시켜 지역내 확진자 증대 방지에 노력하였다. 특히 고위험 감염지역이었던 대구지역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전투식량 3만개를 지원하였고, 군이 보유한 화생방 제독장비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지자체의 방역 및 소독지원을 하였다. 또한 추가로 공병부대를 투입해 국군대구병원이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조기에 운용되도록 하였다.

우리는 현재도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라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을 경험하면서 감염병의 무서운 과급효과와 우수한 국가적 대응역량의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적 신임도 상승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 안보차원에서 국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군이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난은 언제든 다가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은 향후 다시 찾아올 감염병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광범위한 비전통적 안보 위협을 식별하고 이에 대해 지금부터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준비해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임무형 지휘’를 장교단의 정신문화로 승화시켜야 한다

사회 저명인사 칼럼

류제 승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육사35기, 예. 중장



임무형 지휘는 21년 전인 1999년에 육군의 지휘개념으로 처음 채택되었습니다. 그동안 육군은 임무형 지휘에 관한 교리, 교육, 조직 등의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임무형 지휘를 육군의 지휘 철학이요 최상위 지휘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이 철학의 핵심은 상급 지휘관(자) 이하 ‘리더’로 표기) 하급 지휘관(자) 이하 ‘팔로워’로 표기)들에게 행동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팔로워는 리더가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리더의 의도 범위 내에서 행동의 자유, 즉 리더의 명령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복종’, ‘복종 속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나라의 운명은 장교 개인과 장교단이 어떤 가치관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짐은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군의 존재 이유는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군의 사명을 다하려면 장교단이 군의 중심에서 우수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장교단의 우수한 리더십 역량은 어떻게 형성하는가? 그 해답은 임무형 지휘 철학과 원리에 있습니다. 임무란 무엇인가? 임무는 주어진 시·공간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는 명령입니다. 리더는 팔로워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팔로워는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여 수행합니다. 임무형 지휘는 리더의 역할 활동과 팔로워의 역할 활동 사이에서 일어나는 역동적 상호 작용의 과정입니다.

리더는 자신의 의도를 알리고 명확한 목표를 제시(What to do?)하며,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역량과 수단을 최대한 제공해야 합니다. 리더는 오직 팔로워들이 동일한 목적에 기여하고 팔로워들 간에 조화로운 실행이 필요할 경우에만 세부사항을 하달합니다. 리더는 팔로워의 실행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의도 구현이 위태롭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개입합니다. 리더는 팔로워들의 개별 능력과 경험도를 통찰하여 미숙한 팔로워는 보다 더 세심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팔로워는 리더가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적의 세부 방법과 수단(How to do?)을 안출해야 합니다. 이때 팔로워는 리더와 ‘함께 생각’하면서 주도성, 자주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팔로워가 누리는 행동의 자유는 리더의 의도에 부합하고 지휘 현장의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순간의 이점을 이용할 줄 알아야 비로소 보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임무형 지휘 철학과 원리를 대한민국 장교단의 정신문화로 정착시키고 계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관생도부터 장교단과 장군단에 이르기까지 ① 투철한 국가의식을 형성하고, ② 우수한 판단력을 함양하며, ③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④ 규범에 기초해 명령과 복종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임무형 지휘의 정신적 전제 조건에 대해 하나하나 논의해 보겠습니다.

첫째, 장교는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성찰과 자각을 통해 국가의식을 형성해야 합니다. 국가의 책무는 국민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최대한 보장하고, 내·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자기계발과 직업 생활에서 소명을 다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장교의 자아실현 노력만큼 국가의 책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직업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교단의 국가관을 보면 그 나라의 현재와 미래가 보인다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둘째, 장교 개개인은 우수한 판단력을 함양해야 합니다. 판단은 개념과 직관의 작용입니다. 개념은 공부와 수련을 통해 형성되고, 직관은 개념이 고도화됐을 때 비로소 발휘됩니다. 역사적으로 임무형 지휘의 원형은 현재 독일 연방군의 모체인 프로이센 육군이 추진했던 개혁 정신과 프로그램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프로이센 개혁자들은 1806년 예나 전투에서 참패해 나폴레옹에게 국권을 빼앗긴 직후 “강한 국가가 되려면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당시 개

혁을 주도했던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 장군은 작은 나라 프로이센을 주변 강대국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힘은 장교단이 우월한 판단력이라는 신념으로 장교 교육과정의 혁신에 진력했습니다.

셋째, 장교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모든 군인은 ‘군복을 입은 국민’입니다. 여기서 헌법적 가치란, 국군의 국가 안전보장, 국토 방위,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를 비롯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 인권을 포함한 일련의 자유권, 국방의 의무를 포함한 6대 의무 등을 일컫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모든 군인의 거주이전·결사집회의 자유 등은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넷째, 군인은 명령과 복종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장교는 어떤 명령이든 헌법적 가치와 법규에 정합하는지, 합법적 또는 합리적인지, 충성의 대상이 국가인지 정치권력인지를 냉정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헌법을 비롯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시행령, 군형법 등이 제공해줍니다.

결론적으로, 미래 정예장교 육성의 요람인 육군3사관학교는 사관생도들이 임무형 지휘의 요체를 체화하고 장교단의 정신문화로 승화시키도록 비옥한 토양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천하무적(天下無敵)의 강군으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사관생도 여러분의 수련에 눈부신 진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19 이후 가속화되는 언택트 시대,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모두가 여실히 느끼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19는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오죽하면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전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더라도 세계 질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며, 전통 제조업과 대면 서비스업 등은 지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언택트(비대면) 산업’ 중심으로 재편된다고 예상된다.

언택트란 접촉(Contact)을 뜻하는 콘택트에 언(Un)이 붙어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언택트는 엄밀히 말하면 코로나 이전에도 진행되고 있던 개념이지만,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모든 변화의 축이 되고 있다. 언택트 시대, 지금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진화하게 될까?

언택트 시대의 변화 4가지

1. 세계는 유통혁명 중 : 계산대 없고, 부르면 달려오기

아마존은 이미 2018년에 ‘지나가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아마존고’를 선보였다. 이곳에서 고객은 물건을 고른 뒤 그냥 출입문으로 나가면 된다. 그러면 수백 개의 인공 지능(AI) 카메라 센서를 통해 고객이 어떤

상품을 샀는지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이후 앱 내에서 결제까지 하게 된다. 또, 부르면 달려오는 편의점도 있다. 스웨덴의 자전거 카페 ‘휠시’와 중국이 ‘허페이 대학교’, 리테일 전기업 ‘히말라파’가 공동으로 개발한 ‘모비마트’이다. 모비마트는 GPS 내비게이션, 각종 카메라 센서, 인공지능 솔루션이 탑재돼 있어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운전자 없이 스스로 움직인다. 고객은 간편하게 스마트폰 앱으로 모비마트를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가 진열된 상품을 집어 드는 것만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2. 어디서든 만나는 은행 : 대출, 자산관리, 투자상담까지

‘언택트’는 금융업의 판도도 바꿔놓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은행이나 증권사를 찾지 않아도 대면 서비스 이상의 서비스를 기대하게 되었다. 증권사나 자문사는 이미 온라인 고객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도 전문가들이 화상으로 소비자와 상담하는 시스템을 선보이는가 하면, 문자와 음성을 모두 인식하는 아바타 캐릭터를 만들어 실제 대화하듯 은행 거래를 하는 곳도 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지로용지를 스캔하면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이나 카드 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홈페이지나 앱에서 여러 보험사의 가입 내역을 확인해 부족한 보장을 보완하거나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도록 해주는 ‘셀프 보장분석’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3. 모호해지는 집과 회사의 경계선 : 유연 재택근무제

최근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지면서 수많은 기업이 재택근무를 시행했다. 직장인들은 재택근무의 장·단점을 몸소 깨달았고, 회사들은 재택근무를 해도 정상적인 비즈니스가 가능하며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집에서 모든 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고,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유연 재택근무제’를 많은 기업이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자간 화상 회의 기술이나 회의록 등의 파일을 공유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다.

4. 학교와 학원의 교육 개혁 : 비대면 강의 보편화

교육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기업들이 재택근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불가피했던 것처럼,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부득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온라인 수업이 보편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

다. 현재 대학에서는 국내 스타트업 ‘줌(Zoom)’이나 시스코 ‘웹엑스(Webex)’, 구글 ‘지스위트(G-Suite)’ 등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축하거나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하고자 학교뿐만 아니라 사교육에 대한 제약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교육도 AI,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대면 과외는 점차 줄어들고, 유명한 스타 강사의 온라인 강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도 보일 것이다.

선택이 아닌 필수, ‘언택트’



앞서 언급했듯이 언택트 시대의 변화는 이미 진행되는 것이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폭발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세상에서 일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필수 요소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완전히 달라질 앞으로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일하고, 어디에 투자할지 많은 공부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글은 충성대신부 독자들의 시화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주)삼성자산운용의 동의하에 해당 기업의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에 있는 원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삼성자산운용 공식네이버 블로그 : samsungfundblog.com

유엔참전국기념비 답사기 3화
용인 터키군참전기념비

1대 40의 백병전에서 한치의 물리섬 없이 싸운 터키군

6·25전쟁 당시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인원을 파병했고, 그만큼 많은 전사자가 발생했던 나라는 바로 터키다. 오늘은 터키군참전기념비를 찾아서 용인시로 향해본다. 파란 여름 하늘 아래 터키 국기와 태극기가 높게 휘날리고, 그 뒤로 터키군 참전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그 앞에 서보니 쏟아지는 중공군에 맞서 한치의 물리섬 없이 싸웠던 터키군의 합성이 들리는 듯했다. 1인당 40명의 적을 베었다는 터키



▲ 터키군참전기념비

1950년, 전쟁 소식을 들은 터키는 즉시 유엔의 대한 군사원조 결의를 적극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어 자국의 안보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500여명, 1개 여단 규모의 지상군 파병을 결정하였다. 1950년 8월 3일 터키 육군은 보병 제28사단 제241연대와 제2기갑여단 제2포병대대를 주축으로 '파한 터키군'이라는 전투부대를 편성하였다. 여기에 공병, 수송, 의무, 병기, 통신부대 등을 포함한 지원부대까지 차출하여 독립작전을 펼칠 수 있는 여단편성을 완료하였다. 3개 제대로 나뉘어 출발한 터키군 5,090명은 10월 17일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터키여단은 즉시 대전-대구 간 주보급로 경계임무를 수행하면서 한국전선에서의 본격적인 작전활동을 개시하였다.

터키군이 한국에서 치른 첫 전투는 195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벌어진 군우리 전투였다. 터키여단은 이곳

에서 중공군의 집중공격을 받고 패배 철수하는 미 2사단을 구출하기 위해 5배 이상 되는 적군에 맞서 싸워야 했다.

인해전술과 파상공격을 펼치는 중공군이 끊임없이 밀려왔고, 처음 경험하는 영하 20도의 강추위와 배고픔까지 더해져 터키군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고 있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11월 29일 자정 무렵 중공군의 기습공격이 다시 시작되었고, 결국 이들에게 철수 명령이 하달되었다. 터키여단과 미 2사단 소속 장병들은 철수하기 시작했으나, 철수대형이 이동하는 도로와 능선일대를 완전히 장악한 적은



▲ 전투현장에 국기를 세우는 터키군(왼쪽), 군우리 전투 현장의 터키군 모습(오른쪽)

기다렸다는 듯이 양방향에서 포탄 공격을 시작했다. 일명 '태형의 계곡'에서 터키군과 미 2사단 병력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7일간의 악몽 같은 군우리 전투 후에 터키여단은 총 병력의 15%와 105mm 곡사포를 포함한 주요 장비 70%를 잃고 말았다. 그러나 터키군의 이러한 분전으로 미 제2사단은 계곡을 통과할 수 있었고, 미군 희생자는 현저히 줄었다.

군우리 전투에서 뼈아픈 패배를 경험한 터키군은 이듬해 1월 25일 용인시 김량장동과 151고지 일대에서 중공군 제50군 예하 149사단 447연대, 150사단 448연대와 격전을 벌였다. 지난 군우리 전투에서의 설욕을 만회하려는 그들의 각오는 남달랐

다. 터키여단은 안성-송전리 선에 전개하여 12km나 되는 넓은 정면을 공격하기 위해 2개 공격 제대로 나누어 공격하였는데, 당시 중공군도 이곳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결전을 시도하고 있었다. 결사적으로 현 진지를 고수하려는 중공군과 설욕을 위해 각오를 다진 터키군 간의 대격돌이었다. 먼저 점령에 성공한 것은 터키여단의 제2대대였다. 그들은 미 공군기의 근접지원과 인접 부대의 지원 포격 아래 시가지 중심부로 돌진하여 치열한 백병전을 벌인 끝에 김량장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어서 151고지를 향한 1대

대와 3대대는 전력을 다한 포격에도 끄떡없고 튼튼한 진지를 구비한 중공군에 가로막히고 말았다. 그러나 터키군은 자신들의 신인 '알라'를 외치며 쏟아지는 포탄을 뚫고 적진으로 돌격하였고, 죽음을 각오한 백병전 끝에 151고지를 탈환하였다.

이 전투에서 터키 병사들은 총검에 의한 백병전으로 1명당 40명의 적을 무찌름으로써 '용감한 터키군'의 진면목을 전 세계에 과시하였다. 3일간의 전투에서 확인된 중공군 전사자의 수는 474명이었는데, 대부분의 사인이 총검술에 의한 것이었다. 이후 유엔군 사이에서는 '백병전' 하면 '터키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또한, 이날은 중공군의 침략으로 후퇴작전을 계속해 오던 아군이 재반격을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터키여단은 이 전공으로 1951년 7월 6일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부대 표창을 받았으며, 1951년 9월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전쟁기간 중 투입된 터키 병력은 총 21,212명으로 그중 966명이 전사 또는 사망하였고, 부상, 실종 등 인명피해는 총 2,365명으로 유엔 참전국 중 미군과 영국군 다음으로 큰 것으로 알려졌다. 터키군은 휴전 이



▲ 터키군참전기념비 상단의 동상

후에도 부대 1개 여단 병력이 계속 한국에 주둔하여 서부

후전선을 지켰다. 1971년 6월 한국 파병을 마칠 때까지 총 16년 동안 우리나라를 도운 것이다. 또한, 영화 <아일라>를 통해 보았던 것처럼 수원에 '양카라 보육원'을 지어 전쟁 고아들을 돌보기도 했다.

유엔 참전국들의 전투를 보면 어떻게 알지 못하는 나라의 평화를 위해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노력할 수 있을까 존경스러워질 때가 많다. 자유와 평화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안타깝게 희생된 터키 영웅들을 위해 참전기념비에서 잠시 묵념을 올렸다.

참고자료

『6·25전쟁과 유엔군』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5)

『형제의 나라, 한국과 터키』 (국가보훈처, 2007)



※ 국방정신전력원 블로그에서 더욱 다양한 정신전력 교육용 콘텐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jungsin3560>
글/사진: 허호영(국방정신전력원전문연구원)

지역문화탐방

푸른 파도 일렁이는 해와 달의 고장, 해양도시 포항

드넓은 바다와 멋진 풍경들, 휴양, 과학, 음식, 힐링 등 다양한 테마를 즐길 수 있는 포항을 방문했다. 포항은 경상북도 동해안의 중앙에 위치한 해병대의 고장이다. 호미곶 해맞이 광장, POSCO 등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해수욕장이 많아 해양 레저 산업, 포항 12경 등 관광산업이 풍부해 즐길 거리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싱싱한 지역 특산물인 즐비한 맛집과 아름다운 풍경을 그림 삼아 즐기는 카페,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사진 명소를 방문하는 젊은 층들이 많다고 한다. 다양한 놀거리로 유명한 포항, 그 중 꼭 가야 하는 곳을 엄선해보았다.



▲ 죽도시장

첫 번째로 방문할 곳은 죽도시장이다. 죽도시장은 동해안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시장으로, 어시장과 곡물 시장이 함께 있어 다양한 농수산물을 만나볼 수

있다. 갖가지 신선한 해산물과 회를 맛볼 수 있는데 특히 명절에 해산물을 구매하려 오는 귀향객들을 위해 셔틀버스가 있을 정도라고 한다. SNS상에 알려진 유명 맛집들도 많으니 꼭 방문해보길 바란다.



▲ 호미곶 해맞이 광장

두 번째로 방문할 곳은 일출명소! 해맞이 명소! 해돋이 명소인 호미곶 해맞이 광장이다. 호미곶 해맞이 공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일출명소로 손꼽는 곳이다. 탁 트인 바다에는 상생의 손이 있다. 마치 섬처럼 호미곶을 지키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설치물로 손바닥 위로 뜨는 해가 인상적이다. 호미곶을 중심으로 호미 반도 해안 둘레길이 만들어져있는데 사진 찍으며 산책하기 좋은 장소다. 호미곶을 방문하면 바다가 만드는 아름다운 예술을 감상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방문할 곳은 동백꽃 필 무렵



▲ 일본인 가옥 거리

촬영지로도 유명한 구룡포 일본인 가옥 거리다. 내부에 들어서면 나지막한 동산이 시선을 끈다. 왼쪽은 일본인 거리, 오른쪽은 근대역사 박물관으로 이어져 있다. 그중 1944년 일본인이 세운 돌기둥과 계단의 형태와 경사가 인상적이다. 그곳에서 200미터가량 내려오면 일본인 가옥들이 줄지어 있는데 해설을 보면 과거 일제강점기 때에는 일본 어부가 1000명을 넘었을 만큼 가옥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오도리odosi

네 번째로 방문할 곳은 오도리odosi다. SNS상에서도 유명한 이 카페는 시그니처 메뉴인 오도 우유를 마시며 바다를 배경으로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이 있다. 포항

시 북구 흥해읍 해안로에 있고, 이 근방엔 아름다운 카페들이 많으니 가족, 친구, 연인과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 영일대 해수욕장

마지막으로 방문할 곳은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이다. 해가 지면 포스코의 불빛은 더욱 반짝이고, 영일만을 바라보는 횃집과 식당들이 줄지어 식욕을 자극한다. 해수욕장 너머에는 영일교가 있는데, 바다 위에 다리와 누각이 함께 있어 더욱 특별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포토존도 많아 추억을 남기기도 좋을뿐더러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이 밖에도 포항 운하, 연오랑과 세오녀 공원, 장기읍성, 보경사, 오아사 등 아직 소개하지 못한 명소가 많다. 코로나로 답답했던 올 상반기, 이번 휴가는 속이 시원하게 풀리는 동해와 풍부한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포항으로 가보는 것은 어떨까?

56기기자생도 최정운
57기기자생도 장석수

가을철 발열성 질환 미리 대비하자!

건강상식

국군의무학교 세이브센터 교육/개발장교 소령 이현희



구분	쓰쓰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전파 경로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서 감염	감염된 동물의 소변에 오염된 물, 토양, 음식물에 노출 공기 중 건조되어 사람의 호흡기나 상처 난 피부를 통해 감염	설치류의 타액, 소변, 분변이 물, 토양, 음식물에 노출 공기 중 건조되어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감염
잠복기	8~11일	5~7일	7~21일
임상 증상	고열, 오한, 심한 두통, 발진, 구토, 복통, 가피형성(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치료 안할 시 치명률 0~30%	증상이 중증도 다양. 발열, 오한, 결막부종, 두통, 오심, 폐출혈. 치료 안할 시 치명률 20~30%	발열기, 저혈압기, 핏노기, 이노기, 회복기의 5단계. 치료 안할 시 치명률 2~7%
역학	사람 간 전파 안됨. 털진드기 유충이 동물의 체액을 흡입하는 봄과 가을에 호발. 연간 5~6,000건 발생 (사망 3~7건)	가벼운 감기증상부터 치명적인 웨일씨병(Weil's disease)까지 다양함. 연간 50~100건 발생. (사망 0~3건)	발열기, 저혈압기, 핏노기, 이노기, 회복기의 5단계. 연간 3~400건 발생 (사망 3~7건)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한 하계휴가를 다녀오고 난 후, 코로나19와 더불어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은 쓰쓰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 등 4개 법정 감염병을 말한다.

쓰쓰가무시증은 감염된 털진드기에 의해 감염되며 8~11일의 잠복기를 거친 뒤 고열과 오한, 심한 두통, 발진,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킨다.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근에 딱지가 앉는 특징도 있다. 최근 매

개 진드기의 분포 지역이 확대되고, 개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 건수도 2003년 1,415건에서 2018년 6,668건으로 늘었다.

렙토스피라증은 동물의 소변에 오염된 물과 토양, 음식물 등에 상처 난 피부가 노출되었을 때 걸리는 질환이다. 5~7일의 잠복기를 가지며, 발열부터 결막부종, 폐출혈 등의 증상을 보인다.

신증후군출혈열은 감염된 설치류의 타액과 소변, 분변이 건조돼 공기를 타고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갔을 때 감염된다. 잠복기는 최대 21일이며 열이 난

뒤 혈압이 떨어지고, 소변의 양이 줄었다가 늘어나는 증세를 겪은 뒤에 회복된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는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질환이다. 2011년 중국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처음 감염 발생이 보고되었다. SFTS에 감염되면 원인불명의 발열과 식욕 저하,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동시에 두통, 근육통 등이 동반된다. 특히, 추석 시기 별초와 성묘할 때 많이 발생되며 2013년 36건에 비해 2019년 223건으로 큰 증가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가을철 발열성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다.

- ▶ 진드기에 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야외활동 시 풀밭 위에 옷을 벗어 놓거나 눕지 않기
 - ▶ 야외활동 시 피복 및 노출 피부에 보급용 곤충기피제를 살포하기(1시간 간격)
 - ▶ 들쥐 배설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잔디 위에 침구나 옷가지를 말리지 않기
 - ▶ 논과 같은 고인 물에서 벼 베기, 벼 세우기 등의 대민지원 시 고무장갑과 장화를 반드시 착용하고, 팔·다리 등 노출된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작업을 제한하기
 - ▶ 야외 작업 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 샤워, 옷 세탁 등 청결 유지하기 등이 있다
- 가을철 증가하는 발열성 질환은 감염됐을 때 대개 완치가 가능하나 치료시기를 놓치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도록 야외활동 시 주의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련 증상에 대해 잘 파악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독자투고 명문가(名門家)를 찾아서

③ 서애 류성룡 선생님의 종택을 찾아서

이번 '명문가를 찾아서'는 지난 호에 이어 서애 류성룡(1542~1607) 선생님의 집안인 풍산 류씨 집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6월호에도 언급하였지만, 서애 선생님과 학교는 끊을 수 없는 인연이 있다. 화산유적장 내에는 '옥정영원(玉井靈源)' 옆 서애선생님의 시비가 학교와 풍산 류씨 집안을 잇는 매개체인데, 이를 계기로 서애 선생님의 종택이 있는 인동의 하회(河回)마을을 오랜만에 방문하게 되었다.

하회마을은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면 하회리에 있는 민속 마을로 풍산 류씨의 집성촌이다. 학교에서 이동하면 대략 1시간 반 정도 걸린다. 하회마을은 국가 중요 민속문화재 제122호이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인증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더 알려져 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민속 마을은 지난번에 소개한 적이 있는 경주 양동 마을도 있다. 그

밖에도 1999년 4월 21일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하회마을에 방문한 사실도 많이 알려져 있다.

풍산 류씨의 입향조는 8세조인 종혜(從惠)로 알려져 있지만 14대손인 류운룡, 류성룡 형제의 시기에 문중이 더욱 성장하였다. 두 분 다 문중의 거봉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두 계손들을 겸암과, 서애파로 부르고 있다.

하회마을에 도착하자 류한욱(안동하회마을보존회 이사장), 류창해(서애 선생님의 집안 종손), 류한철(안동하회마을보존회 사무국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다.

간단히 차담을 하면서 학교의 중요한 유적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중요한 유적인 '옥정영원' 옆 서애 선생님의 '7언 절구' 시비(詩碑)의 정비(整備)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었고, 역시 명문가다운 포용력으로 집안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흔쾌히 해주셨다.

이어서 류창해 선생님을 따라 서애 선생님의 종택인 충효당(忠孝堂, 보물 제414호)으로 이동하였다. 충효당이라는 당호는 선생님이 평소 자손들에게 나라

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는 말을 자주 하셨기에 이를 기리기 위하여 명명하였다.



▲ 충효당
충효당은 류창해 선생님의 선친이신故 류영하 선생님과 그의 친분이 하회마



▲ 병산서원

을 방문할 때마다 자주 들렀었는데, 류창해 선생님이 종손이 된 후에는 첫 방문이었다.

류창해 선생님 또한 류영하 선생님처럼 선천적으로 종손으로서의 기쁨이 잘 같무리 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오후에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근처에 있는 병산서원(屏山書院)으로 이동하였다. 병산서원은 서애 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해 1613년에 지어진 서원으로 사적 제260호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2019년 7월 6일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한국의 서원'이 등재되었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9개의 서원 중 한 곳이 바로 '병산서원'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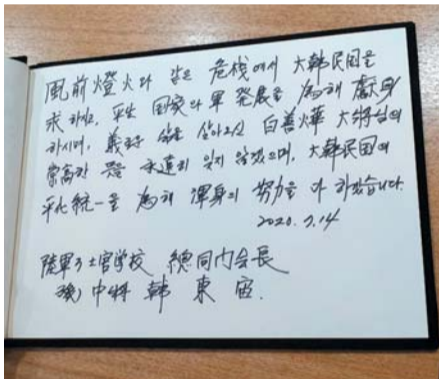
즉, 풍산 류씨 집안은 하회마을, 병산서원 2곳을 세계문화유산을 가진 세계적인 명문가인 것이다. 이번 하회 방문도 여느 때와 같이 고향을 갔다 오는 푸근함을 가지고 복귀할 수 있었다.

중령 최재호

3사총동문회, 故 백선엽 장군 조문



3사총동문회는 지난 7월 14일 故 백선엽 장군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한동주(14기) 총동문회장을 비롯하여



총동문회 25명이 함께 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분향을 진행하며 故 백선엽 장군의 명복을 받고 정중한 예의를 표했다. 아울러 응접실에서 고인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유가족들을 위로하였다.

총동문회장은 이날 방명록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하시고, 평생 국가와 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의로운 삶을 살아오신 백선엽 대장님의 숭고한 뜻을 영원히 잊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3사총동문회

57기 사관생도 공수훈련 현장 방문

지난 7월 6일 한동주(14기) 총동문회장, 감사 김성수(10기), 사무총장 김동찬(15기), 대외협력위원장 한은재(18기), 변상덕(22기), 사무국장 유진권(24기) 등 각 기수 대표 14명이 57기 생도들의 강하 훈련을 격려하기 위해 생도대장(준장 김호복)의 동참 강하 일정에 맞춰 특수전학교 공수훈련장을 방문하였다.



▲ 총동문회장이 생도들을 격려하는 모습

한동주 총동문회장은 후배 57기 생도들을 격려하면서 “훈련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장차 군의 고급장교로 성장하려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이겨내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나 자신을 강하게 키우고 단련해 국가가 바라는 자랑스러운 장교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

했다. 한편, 총동문회장은 총동문회를 대표해 57기 사관생도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였고 생도들은 답례로 기념품(공수 훈련 티셔츠)을 총동문회 측에 전달했다. 또한, 26기와 29기의 햄버거와 폴라 전달, 22기 및 27기, 29기 대표들의 위문금 전달은 훈련 중인 생도들의 사기를 크게 높였다.

3사총동문회



▲ 총동문회 회원들과 57기 사관생도들의 기념사진 촬영

3사 26기 총동기회 회의 실시



3사 26기 동기회 임원 회의가 지난 8월 7일 이강규 동기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는 26기 총동기회 운영 및 활동사항 등을 결정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 결과, 3가지의 안건이 확정되었다.

1. SNS(밴드, 카페, 카톡 등) 운영위원회 확정

▶ SNS업무와 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확정해 업무의 효율성 향상

2. 26기 총동기회 지문위원 운영 안 확정

▶ 분야별(1~2명)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동기를 지문위원으로 위촉

하여 같은 분야에서 제2의 삶을 준비하는 동기생에게 know-how를 알려주는 등 멘토 역할

3. 26기 총동기회 활동 알림 정리화

▶ 총동기회 활성화를 위해 주간 실시 예정사항을 매주 금요일에 게시

이외에도 2021년 총동기회 사업을 계획하고 이전 6대 집행부로부터 원만한 총동기회 회무 인수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회의를 마친 이강규 회장은 “총동기회 화합과 단결을 위해 항상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3사총동문회

각 기수 회장단 단합대회 및 동문회장과의 현안 대화

지난 7월 10일 총동문회관에서 총동문회장 한동주(14기), 사무총장 김동찬(15기), 정진국(19기) 예비역 준장, 22기~45기 대표(회장 및 총무)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기수 회장단 단합대회 및 동문회장과의 현안 대화를 실시했다.

이날 각 기수 회장들은 동문들 간의 소통 및 모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 동안 동기 모임이나 동문 간의 소통이 부

족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수 간 통합 모임과 이벤트를 제안하여 진행해 보자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또한, 총동문회장과 가진 현안 대화에서는 모교 출신 동문들의 취업과 관련한 현안 문제들이 논의되었고, 향후 동문 취업을 제고를 위해서 총동문회 중심으로 더욱 논의하고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사총동문회



▲ 각기수 회장단 단합대회 및 동문회장과의 현안 대화모습

학교 발전재단 소식

2020년도 학교발전기금 참여 현황

'20. 6. 20 ~ 8. 24까지 기부현황입니다.

※ 범례 : 해당기간 기부액(총 기부액)

총 자산 79억 4,000만원 (2020.8.24 기준)

■ **단체/우인**: 두림아스카(주) 1,000 (6,000)

■ **3사관학교 발전과 함께하는 군간부**

정한기(육사#39 2(85), 이희범(육사#41) 2(390), 최완규(육사#44 2(15), 김호길(육사#48 3(42), 김태욱(육사#51) 4(20), 두석주(육사#51) 2(150), 이우진(육사#54 2(52), 박기홍(육사#55 2(112), 조상근(육사#56 2(126), 변용성(육사#58) 2(91), 이귀현(육사#58) 2(85), 이주실(육사#58) 2(70), 김대영(육사#59 2(153), 김진찬(육사#61) 2(55), 홍희종(육사#61) 2(86), 이한우(육사#63) 2(15), 오민경(육사#65) 2(30), 오범진(육사#65) 2(8), 홍인재(육사#65) 2(20), 문준호(육사#67) 2(35), 이찬우(육사#68) 2(30), 권성진(육사#69) 2(18), 한덕수(학군#26) 12(97), 남기웅(학군#29) 2(2), 고성진(학군#31) 2(21), 구희곤(학군#32) 2(94), 서필석(학군#34) 2(2), 이두진(학군#35) 2(8), 곽홍렬(학군#37) 2(20), 송경재(학군#37) 2(14), 김재운(학군#43) 2(42), 김광운(학군#44) 2(40), 이종민(학군#44) 2(13), 정우람(학군#46) 2(8), 김태룡(학군#48) 2(32), 이세훈(학군#48) 2(13), 홍현신(학군#48) 2(11), 김민범(학군#49) 2(14), 나상철(학군#49) 2(5), 윤정훈(학군#50) 2(17), 최재호(학사#29) 2(114), 최영식(학사#33) 2(16), 이준수(학사#35) 2(98), 윤경주(학사#46) 2(4), 김호근(학사#49) 2(16), 임도현(학사#54) 2(93), 구주현(학사#55) 2(16), 박수영(학사#55) 2(8), 성현애(학사#56) 2(36), 강진선(학사#57) 2(2), 전어울(학사#58) 2(44), 심정현(학사#58) 2(24), 김소현(어군#46) 2(9), 이희정(어군#49) 2(27), 이수영(어군#51) 3(4), 김형태(간부#22) 2(44), 강찬영(군중#61) 3(20), 최윤정(간사#38) 2(29), 송소연(간사#58) 2(10),

▶ **부사관**: 이각우 1(43), 진정철 2(63), 이명관 1(1)

▶ **군무원**: 김인수 2(26), 류재운 2(182), 안영주 2(32), 양성우 2(54), 유정호 2(7), 정혜란 2(11)

■ **졸업·재학생도 부모** ('20.6.20~8.24 기부명단)

▶ **졸업생 부모** (졸업기수/관계)

윤종택 (#38 윤호영 부) 10(380), 김종순 (#45 김성수 부) 6(32), 조경해 (#45 황정태 모) 10(745), 윤용상 (#48 윤희웅 부) 2(60), 성동모 (#50 성영환 부) 4(180), 안순봉 (#51 박상응 모) 20(270), 윤우상 (#51 윤형민 부) 2(78), 김현미 (#52 오치원 모) 2(36), 이영미 (#52 황성규 모) 9(262), 정정화 (#52 조강현 모) 2(329), 박일심 (#53 정필승 모) 4(102), 이영빈 (#53 오경철 모) 8(40), 조정숙 (#53 유영빈 모) 4(100), 황경부 (#53 황순범 부) 10(520), 윤명남 (#54 이지호 모) 10(200), 홍성은 (#54 홍동민 부) 2(224), 서완수 (#55 서지찬 부) 6(58), 유현구 (#55 유경운 부) 4(120), 정원섭 (#55 정준영 부) 2(109), 한순욱 (#55 이현중 모) 20(2,200)

▶ **재학생 학부모** (입금자 성명)

(4학년) 김왕기, 김종기, 고경옥, 맹현주, 송학빈, 신윤영, 정희숙

(3학년) 구미라, 김근택, 김낙주, 김수연, 김영근, 김정모, 김정아, 김재원, 김태현, 김해옥, 권창호, 도연정, 박경석, 박성하, 변군식, 백은미, 설용철, 손성미, 심영선, 오유미, 이강현, 이계국, 이동참, 이진우, 임승찬, 장선애, 전재경, 지마리아, 최명숙, 허강우, 홍성봉

※ 개인 기부현황은 발전기금 홈페이지(www.kaayf.or.kr) 내 기부 내역에서 확인 가능.

■ **졸업생(개인) 참여현황** 기간 중 기부자가 없는 경우 가수 표시 않습니다.

- ▶ 1기 김용하 4(126), 남훈조 23(1,190), 임관택 2(68), 전수천 2(85), 최익환 2(70)
- ▶ 3기 장영집 5(225) ▶ 4기 임성기 10(70)
- ▶ 9기 권영호 10(335), 윤지환 9(108), 최병학 10(1,170)
- ▶ 10기 오정석 10(100) ▶ 11기 신사순 20(50)
- ▶ 14기 김종환 2(44), 안호 30(1,710), 이순진 20(659), 이용진 10(190), 하병욱 2(358)
- ▶ 15기 김성연 2(513) ▶ 16기 이종우 2(147), 황병태 4(294)
- ▶ 17기 박종진 50(50) ▶ 18기 구연덕 1(116), 금용백 6(534)
- ▶ 19기 이경희 2(160), 이종형 2(225), 이창호 6(540), 홍성식 1(184)
- ▶ 20기 김운희 2(54), 박권순 2(135), 서정열 12(457)
- ▶ 21기 신철수 6(1,012), 장달수 2(95)
- ▶ 22기 권순태 2(40), 김면수 5(5), 이진성 2(248), 정경호 2(32), 조태환 2(124), 천병규 10(330)
- ▶ 23기 김창수 4(216), 김태일 2(217), 배요식 2(230), 신영찬 2(60), 오승욱 4(238), 정철재 4(112), 허강수 2(259)
- ▶ 24기 광종만 4(28), 권금락 4(280), 권오봉 2(201), 김도협 2(220), 김지영 10(665), 남용구 2(252), 모경원 2(215), 박세철 2(59), 방성대 2(69), 안연준 2(82), 이문휘 2(83), 정정현 2(179)
- ▶ 25기 김남용 2(122), 문봉성 3(140), 손영기 4(122), 이은진 10(30), 이종현 2(39), 장광선 6(342), 장무수 2(37), 전희준 2(293), 조재희 2(111), 홍은표 3(189)
- ▶ 26기 고창준 50(188), 신창대 5(5), 신충인 6(175), 유근환 2(23), 이덕우 1(114), 이원주 6(107), 이태인 4(38), 임우영 2(232), 장용빈 4(106), 홍순범 1(197)
- ▶ 27기 김덕중 2(56), 김성오 4(6), 김지덕 2(10), 김호복 8(209), 석수열 3(33), 안병욱 2(157), 원희문 10(185), 이희순 2(227),

정월균 2(15)

- ▶ 28기 권승원 1(18.5), 권양철 2(96), 김진길 2(68), 김창현 1(154), 박기수 2(79), 박용섭 4(149), 서청수 2(160), 유정일 3(25), 윤석찬 2(128)
- ▶ 29기 김강식 2(233), 김용식 2(62), 김태영 4(6), 박성훈 2(141), 박태용 2(120), 이상일 2(176), 이익규 2(103), 임성호 2(152), 최인섭 2(114), 최준호 2(8), 현태식 2(138)
- ▶ 30기 김종권 2(72), 김호성 2(32), 남진오 2(43), 이병길 2(7), 이진 4(137), 임상달 2(107), 주경호 2(101), 최재봉 2(4), 홍성범 2(25), 함민호 2(88)
- ▶ 31기 권동호 4(36), 김민식 4(74), 김영태 2(169), 김희업 3(214), 박서호 2(8), 염향수 2(124), 이재춘 2(198), 이훈복 2(36), 최대집 2(34), 전경민 2(21)
- ▶ 32기 권관덕 6(299), 김화용 3(101), 송진수 3(53), 이태현 2(36)
- ▶ 33기 고희용 2(21), 김남식 2(151), 김상선 2(128), 김성수 2(215), 김충민 2(8), 김현구 4(365), 남석진 2(125), 노 일 9(128), 안경일 2(222), 안준영 6(92), 이정표 6(41), 조재봉 2(98)
- ▶ 34기 권성진 2(119), 김기수 2(168), 김운성 2(33), 김홍식 6(399), 박필수 2(14), 임창훈 2(68), 정웅민 4(187), 정창근 2(94), 정준황 2(44), 조수창 2(169), 홍영기 2(13)
- ▶ 35기 김병수 2(66), 김수열 2(57), 박병준 6(272), 박상우 2(84), 박상천 2(6), 박시근 2(171), 송명성 4(38), 이문희 2(137), 임창구 2(95), 장춘삼 2(132), 전기홍 2(66), 전성광 2(25), 정영석 2(93), 정호준 4(70), 황재혁 2(15), 허종수 2(12), 한종훈 4(343)

▶ 36~57기 기부현황은 www.kaayf.or.kr 또는 "충성대" 스마트폰 어플에서 확인바랍니다. **지면제한으로 부득이 모든 기부자 명단을 기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비합니다.**

육군3사관학교 기별 참여현황 ('20.07.31 기준, 단위: 만원)

가수	기부액	가수	기부액	가수	기부액	가수	기부액	가수	기부액
1	1억 3,097	12	3,442	23	7,004	34	5,678	45	2억 5,378
2	7,377	13	4,975	24	8,685	35	4,520	46	3억 5,786
3	1억 7,722	14	7,890	25	5,574	36	6,297	47	3억 2,065
4	7,064	15	5,559	26	5,582	37	1억 5,791	48	3억 252
5	7,833	16	6,489	27	3,503	38	1억 8,827	49	3억 903
6	8,106	17	4,222	28	3,135	39	2억 800	50	2억 5,814
7	4,647	18	6,786	29	3,939	40	2억 1,883	51	2억 2,527
8	4,099	19	7,469	30	2,602	41	1억 9,789	52	1억 9,220
9	7,734	20	8,020	31	3,051	42	2억 4,769	53	1억 4,126
10	1억 773	21	5,015	32	2,727	43	3억 157	54	9,317
11	4,873	22	4,807	33	6,740	44	2억 5,002	55	4,886

발전기금 참여안내

입금계좌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예금주) • 농협 : 766-01-003094 • 국민은행 : 620-01-0861-994

• 우체국 : 900969-01-003463 • 대구은행 : 049-05-005898-6

- 기부지명은 띄워쓰기 없이 6자 이내로
- 졸업생 → (예시) 00기김삼사, 우인/단체 → 입금 후 재단연락
- 재학/졸업생 부모 → (예시) 57박조국부, 56이충성모, 00홍길동부
- 세금정산용 영수증 발급 및 기타문의는 재단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 (054) 330-3180, 3182



“진심이 담긴 작은실천이 모여 학교와 국가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